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4 주 평균 20 만건 첫 하회, 위험자산엔 약한 악재

2026.08.07 · AI Engineer 조재운 jaeun.jo@daishin.com

미국 노동부가 8 월 1 일로 끝난 주간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를 발표했다. 이 지표는 매주 새로 실업수당을 신청한 근로자 수를 집계해 기업의 해고 속도를 가늠하는 대표적인 고빈도 지표다. 직전 7 월 30 일 발표까지는 청구건수가 20 만 건 안팎에서 뚜렷한 방향 없이 횡보했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추세를 나타내는 4 주 이동평균이 처음으로 20 만 건 아래로 내려오면서 흐름이 한 단계 더 낮아졌다.

이번 주 신규 청구건수는 19 만 9 천 건으로 전주(수정치 19 만 8 천 건)보다 1 천 건 늘었다. 다만 이 증가분의 상당 부분은 비교 착시다. 전주치가 원래 19 만 7 천 건에서 19 만 8 천 건으로 위쪽으로 고쳐지면서 비교 기준선 자체가 올라간 결과이고, 최초 발표치 기준으로 맞추면 증 가폭은 2 천 건이 된다. 반면 추세를 보여주는 4 주 이동평균은 19 만 8,750 건으로 전주 대비 4,500 건 줄며 20 만 건 아래로 내려왔다. 이 평균값도 전주 평균이 500 건 위로 수정된 뒤의 비교이긴 하지만, 감소 방향 자체는 분명하다. 정리하면 이번 한 주만 보면 청구가 소폭 늘었고 몇 주간의 흐름으로 보면 청구가 줄고 있다는 뜻이며, 실질적인 신호는 후자, 즉 신규 해고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데 있다. 다만 재취업이 얼마나 원활한지를 보여주는 계속 청구건수는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아 채용 쪽 노동시장 상황은 이번 수치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이 견조한 해고 흐름을 호재로 볼지 악재로 볼지는 지금 시장이 어떤 걱정을 우선하는지에 달려 있다. 현재는 성장 둔화보다 인플레이션 재점화를 더 경계하는 국면으로 판단된다. 연방기금 금리선물 가격은 다가오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회의들에서 인하 확률을 0%로, 오히려 인상 확률을 9 월 64%·10 월 73%·12 월 87%로 반영하고 있고, 변동성지수(VIX)가 15.81 까지 낮아진 점이나 S&P500·나스닥이 1 년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을 유지하는 점도 시장이 급격한 경기 냉각을 우려하는 가격 구조가 아님을 보여준다. 이런 국면에서는 해고가 잦아든다는 사실이 노동시장을 식혀 물가 압력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으므로, 위험자산 입장에서는 오히려 약한 악재에 가깝다. 다만 이번 한 주치는 오히려 늘었고 감소폭 계산에도 수정치가 섞여 있어 폭을 과신할 필요는 없으며, 연준 스탠스에 대해서도 이번 지표 하나로 매파 강화까지 단정하기보다는 현재의 동결 장기화·인상 쪽 반영 경로와 상충하지 않는다는 정도로 읽는 편이 맞다. 원유가격 하락, 유로존 물가의 예상 하회, 중국 제조업 지표의 위축 재진입 같은 반대 신호도 남아 있어 이 국면 판정 자체가 앞으로 바뀔 여지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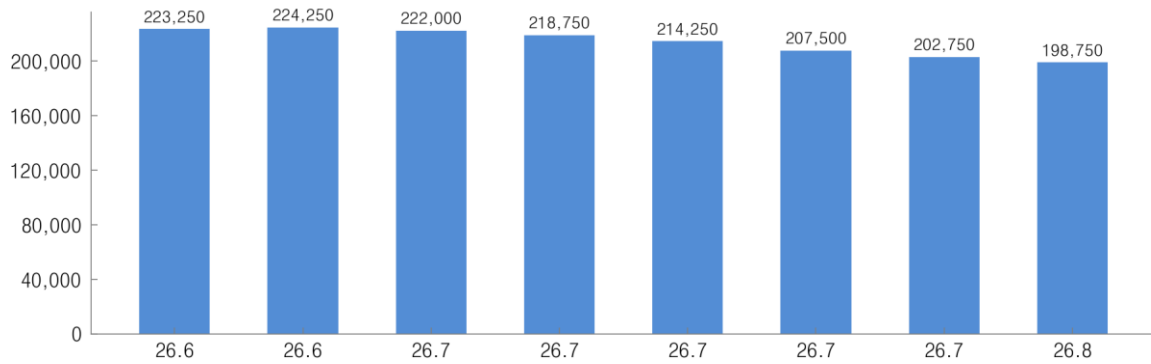
앞으로는 이번 주간 수치가 다음 발표에서 어떻게 수정되는지, 그리고 이번에 빠진 계속 청구건수와 구인·이직보고서(JOLTS)의 채용률, 월간 비농업 고용지표가 채용 쪽 노동시장을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해고는 잔잔한데 재취업만 막히는 채용 동결형 악재는 계속 청구건수에서만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번 결과는 경기 무착륙(No-Landing) 시나리오와 정합적이며, 이를 근거로 기존 판단을 바꿀 이유는 없다.

과거와 비교 (같은 분류 최근 분석)	
발행일	핵심 메시지
2026-08-06 (이번)	8 월 1 일로 끝난 주간의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19 만 9 천 건으로 전주 수정치보다 1 천 건 늘었지만, 추세를 보여주는 4 주 이동평균은 19 만 8,750 건으로 20 만 건 아래까지 내려오며 4,500 건 줄었다. 해고발 노동시장은 여전히 잔잔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인플레이션 우려가 우위에 있는 현재 시장 국면에서는 이 잔잔함이 위험자산에는 오히려
2026-07-30	7 월 25 일로 끝난 주간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19 만 7 천 건으로 전주보다 9 천 건 늘었지만, 흐름을 대표하는 4 주 이동평균은 20 만 2,750 건으로 오히려 5 천 건 줄었다. 이번 주 반등만 보고 노동시장이 다시 나빠지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며, 4 주 평균의 하락도 상당 부분은 계산에서 높은 과거 수치가 빠져나간 데 따른 기술적인 효과다. 결론을 요
2026-07-23	2026 년 7 월 18 일 주간 대신증권 2026 년 7 월 24 일
2026-07-16	주간 청구 208K 는 전주 대비 개선했으나, 4 주 이동평균의 낙폭이 3 주 연속 가속화(-2.25K → -3.25K → -4.5K)하면서 기업의 구조적 채용 축소 트렌드가 심화 중임을 시사한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발표 요약 (8 월 1 일 종료 주간)				
지표	이번 발표	비교 대상	변화	맥락
신규 청구건수 (잠정치)	19 만 9 천 건	19 만 8 천 건 (전주 수정치)	+1,000 건	전주치가 상향 수정된 뒤의 비교치
전주 신규 청구건수 수정	19 만 8 천 건 (수정치)	19 만 7 천 건 (최초 발표치)	상향 수정	최초 발표치보다 위로 조정됨
4 주 이동평균 (추세)	19 만 8,750 건	20 만 3,250 건 (전주 수정 평균)	-4,500 건	20 만 건을 밑도는 수준, 방향은 감소
전주 4 주 이동평균 수정	20 만 3,250 건 (수정치)	20 만 2,750 건 (최초 발표치)	상향 수정	비교 기준선이 위로 조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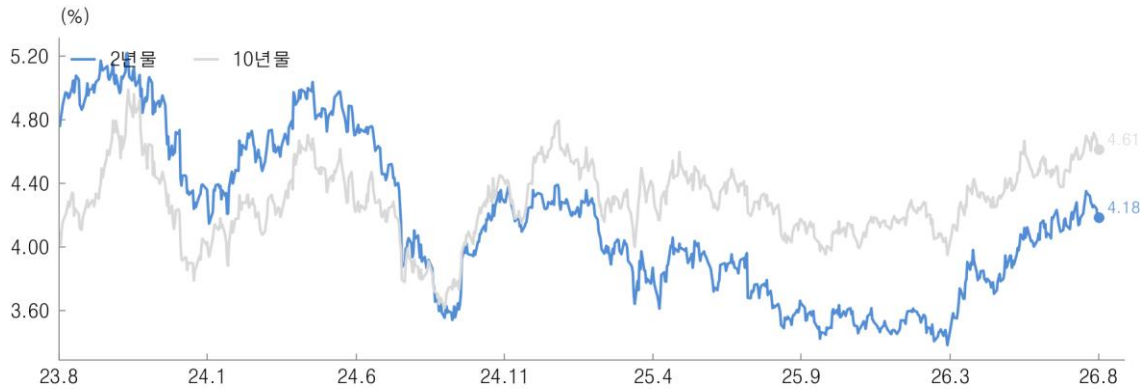
핵심 수치	
지표	값
4 주 이동평균(건)	198750
전주대비(건)	1000
신규 실업청구(건)	199000

Initial Jobless Claims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 ma 4week 최근 발표 추이 (발표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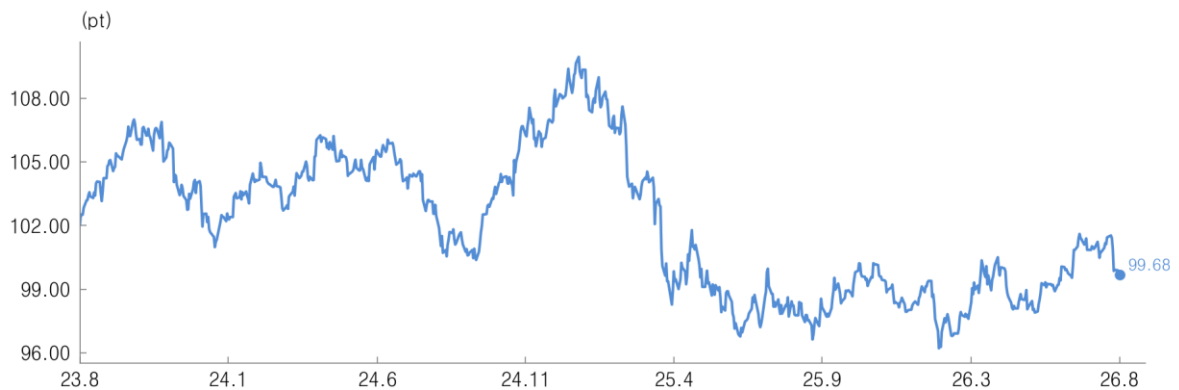
자료: 발표기관 보도자료(하우스 측적),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국채금리 (2년·10년) 3년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달러지수(DXY) 3년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 조 1 항 5 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조재운)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 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자동 생성되었으며,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